

## 國內 電算界의 代父 - 成琦秀

KAIST 85년

### 하버드 시절 컴퓨터 공부

현재의 성기수 소장은 67년 창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센터를 혼자서 이끌어오다시피 한 이 센터의 산 증인이자 브레인이다. 성 소장은 현재 시스템공학센터를 지키고 있는 총직원 533명을 제외하고도 1000명에 달하는 인재를 배출했다.

성 소장은 1934년생으로 경북 성주생. 대구사대부중을 거쳐서 성주농업학교를 졸업한 성 소장은 54년 서울대학교 항공학과에 입학, 교학으로 학업을 마쳤다. 성 소장은 농업학교 시절 6.25동란을 맞았다. 그때만 해도 자신이 우리나라의 컴퓨터 기술을 주도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후 성 소장은 58년 졸업과 함께 공군에 입대, 공사 교수부에서 항공공학 교관으로 68년까지 10년간을 복무했다. 공사에 복무하던 59년 당시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실시하던 로켓 발사에 탄도 계산 담당관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성 소장이 이때 독자적으로 개발·사용한 로켓 彈道의 近似公式인 「Two Analytical Results on Finstabilized Rocket Trajectory Under Quadratic DragLaw」가 美 항공 우주과학지 60년 4월호에 발표돼 하버드대학 대학원 이공학부에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하버드 재학시절 방위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던 전산 분야에 대한 공부를 권유받아 배우게 되었는데 이것이 성 소장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 空士 재직하다 KIST로

그 인연으로 성 소장은 컴퓨터를 알게 되었지만 그때 만약 컴퓨터의 미래상을 볼 수 있는 예리한 시각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그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하버드대에서 우주선이 이온

층을 통과할 때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전기자기 및 流體力學的 現象에 대한 최초의 일반 이론인 「A General Theory of MHD Flow Past Thin Bodies」를 발표, 하버드 300년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귀재로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이같은 실력으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졸업후 하버드에서 연구 교수로 재직하던 성기수 박사는 낙후된 한국의 과학 기술을 깨닫게 되고 개인적인 성취보다 국가의 장래를 염려, 63년 귀국하여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공군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동시에 서울대 대학원에도 출강한 그는 특출한 수학적 능력으로 경제기획원의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때 연구 지원한 논문은 「經濟成長 極大化를 위한 最適政策에 관한 理論」으로 국제계량경제학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67년에는 일본 東京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 계량경제학회 극동회의 연사로 참석, 세계적인 석학들로부터 공동연구를 제의받기도 했다. 그러나 성 소장은 이론적인 연구보다는 구체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대형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보급하고 싶었다. 68년 공군에서 예편한 그는 갓 설립된 KIST로 전직, 電子計算室의 창설을 이끌었다.

이 당시 국내의 컴퓨터 이용 실태는 전무한 상태. 한글 모아쓰기도 자동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성 박사는 회고한다. 성 박사는 69년 한글모아쓰기의 시급함을 인식, 기존 컴퓨터에서 영문으로 된 라인 프린터의 기계적 장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한편, 체인의 영문 캐릭터만을 한글로 갈아끼워 독자적으로 한글모아쓰기를 할 수 있는 로직을 연구했다. 현재 국내에서 일고 있는 컴퓨터 이용 기술의 폭발적인 수요는 이 연구의 덕분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 不毛의 컴퓨터 싹 키워

성 박사의 연구 실적 중 「로켓트 彈道の 近似公式」(60년)이나 「線形磁氣 流體力學의 一般理論」(68년) 등은 세계적인 연구 업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또 그가 남긴 연구 실적 중 「政府 기관 EDPS타당성 조사」(69년), 「한글 라인 프린터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69년), 「EDPS 한글화에 관한 연구」(71년) 등은 국내에서의 컴퓨터 이용에 근간이 됐다. 이밖에 「정부예산업무 EDPS화를 위한 개발 연구」(70년), 「체신부 전화요금 EDPS 개발연구」(71년~74년), 「정보 산업 토착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移轉 개발 연구」(78년~79년), 「의료보험 관리공단업무 EDPS 도입에 관한 연구」(79년), 「원격탐사기술개발연구」(79년~80년), 「정보화 사회의 장기

전망에 관한 연구」(80년) 등은 그와 시스템공학센터 요원들만이 해낼 수 있었던 프로젝트라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성 박사의 연구 실적 중 간과할 수 없는 몇개의 프로젝트는 개발 당시에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됐지만 앞으로도 변치 않는 연구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7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학입학 예비고사업무 EDPS 개발 연구」를 비롯 「금융거래 정보 및 세무 효율화를 위한 전산화 연구」(82년~83년), 「韓國形 最適氣象 시스템 개발 연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공적이 인정되 그에게 몇차례에 걸쳐 주어진 국민 포장(72년), 국민훈장(76년), 5.16 민족상(79년) 등은 그의 업적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는 세평이다. 그러나 첨단 과학의 급자탑은 몇개의 훈장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의 저서처럼 「컴퓨터피아」를 실현하는 길이다. 그런 까닭에 성 박사는 초지일관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한국을 컴퓨터피아화하기 위해 전력투구해 왔다.